



한국고분자학회
37대 회장 김 양 국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여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6년 창립된 고분자학회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국가 산업발전의 산 역사로서 학문적으로는 물론 국내외 최고 수준기술선도(technology leadership)의 학회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산업계 회장으로 그간 전임 회장들께서 추진하던 여러 다양한 학술 사업을 계승, 심화 발전시키고 정착되도록 내실화에 힘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IUPAC-MACRO2020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의 성공에는 제조업의 기여가 뒷받침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현저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응용 학문으로서 고분자 과학 기술이 향후 도래하는 변혁기에 한국 제조업 재부흥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발전 추세에 발 맞춰 기술 변혁기에 필요한 추세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을 물론입니다만,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의 협력자인 중소·중견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전통기술(conventional technology) 과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위 선진국 산업 전략을 모델로 삼아 성공을 체험했으나 이제 미·중 갈등 구조의 새로운 현실 상황에 입각한 지경학적(geoeconomic) 기술개발 전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학회 회원들께서도 소중한 시간과 역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사업 개척형 과제에 못지않게 자동차 및 반도체용 기초 원부자재 등 종래 고분자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수비형 산업 과제에도 힘과 애정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산업경제는 전에 없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지도 모릅니다. 특히 산업계 소속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내 최고 학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하여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이준영 수석부 회장을 비롯한 김승현 전무 및 여러 임원진과 뜻을 모아 우리 학회가 산학연 소통과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쏟아 내겠습니다.

2019년 학회를 위해 애쓰신 차국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김 양 국